

일 주 문



제1회 범어사배 친선축구대회 수발 범어사 주지 스님은 10월 4~25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양산종합운동장 및 양산 일원서 '제1회 범어사배 친선축구대회'에 결연을 실시한다.



제35회 경전학교 원학 봉은사 주지 스님은 9월 11일~11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봉은사 보우당서 제35회 경전학교 '주지 스님의 치문경훈'을 진행한다.



3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지흥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스님은 8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3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을 개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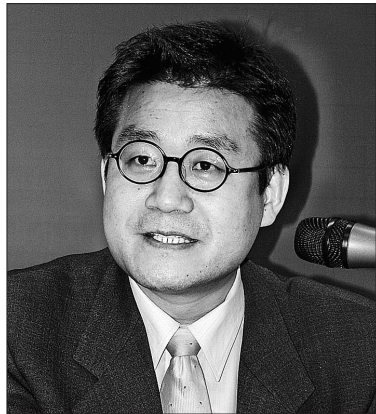
신요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호성 교운사 주지 스님은 9월 5일 교운사 문화림플관 1층 강당서 신요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을 진행한다.



'엄마와 함께 배우는 사찰음식' 교육 자연 봉녕사 주지 스님은 8월 30일 오후 2시 봉녕사 사찰음식교육관 급비라서 '엄마와 함께 배우는 사찰음식'을 진행한다.

“한국불교학 세계화에 큰 기여할 터”

9월 첫 세미나로 본격활동 나서는 세계불교학연구소 고영섭 소장



세계 4개 지역 구분해 연구 9월 12일 첫 세미나 개최예정 “세계불교학자 조명도 실시”

오스트리아 국립 비엔나대 한국학연구소 등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기반작업을 다져왔다. 이후 5월 21일 동국대로부터 신설 허가를 받고 초대 소장으로 고영섭 소장이 정식 발령을 받았다. 고영섭 소장은 “향후 동향 프로젝트를 학술연구재단에 신청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방면에서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日잡버리서 최초 ‘한국불교관’ 선봬



4년마다 개최되는 스카우트 야영대회 세계잡버리가 7월 28일~8월 8일 일본 야마구치현서 개최된 가운데, 사상 최초 한국 불교관이 운영돼 눈길을 끈다. 대한불교스카우트연맹(연맹장 송목)은 제23회 세계잡버리에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 등 4명의 대표단을 파견해 조계종 불교관을 운영했다. 불교관 전담에는 불상과 명화를 배치해 한국 사찰 대응전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아침 예불을 매일 실시해 지구촌 청소년들이 한국 불교 명상과 참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박이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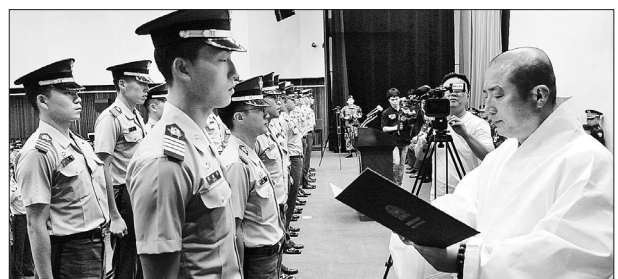
제1회 보리선수 수행법 설명회 개최



보리선수 서울약사선원은 8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회 보리선수 수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대인의 최고 건강비법 움직이는 명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보리선수 창시자 진푸티상사의 직계제자 각성 스님이 강연에 나섰다.

노덕현 기자

은해사, 육군3사관학교에 중약장학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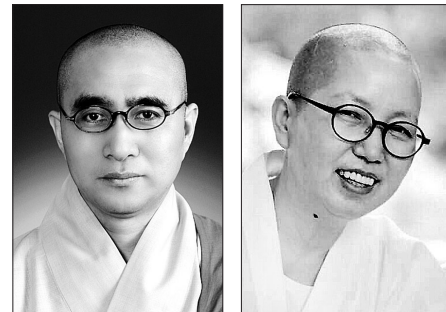
영천 은해사(주지 돈판)는 8월 12일 육군3사관학교(학교장 금음백)에 우수생도 30명에게 ‘중약장학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제24회 행원문화상 보운·희상 스님 선정

오는 9월 16일 시상식... 상금 500만원 수여

(재)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지난 7월 15일 제24회 행원문화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학술상에 중앙승가대 교수 보운 스님, 예술상으로 유연선원 주지 희상 스님을 선정해 이사회 추인을 거쳐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8월 10일 밝혔다. 학술상 수상자 보운 스님은 중앙승가대에서 불교문화 석사와 불교학과 박사학위를 원전번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역경불사에 매진해 왔다. 예술상 수상자 선정된 희상 스님은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해 독일 브레멘 국립조형예술대학에서 현대미술을 전공했다. 독일에서 8년 동안 회화, 설치작업 등을 해온 스님은 한국은 물론 독일과 프랑스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활발한 예술 활동을 했다.



동을 했다. 한편, 학술상 수상자와 예술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 각각 수여되며 올해 행원문화상 시상식은 9월 16일에 열린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수미정사, 교육원에 승가교육진흥기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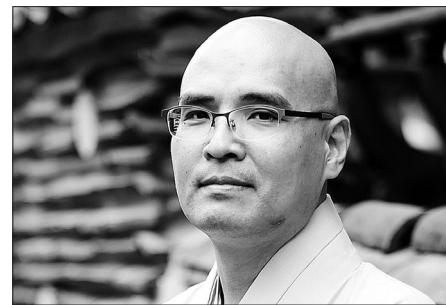


구례 수미정사(주지 석인)가 8월 10일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에 승가교육진흥기금 500백 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수미정사 주지 석인 스님, 수미정사 임채선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혜숙 기자

“박학다식한 인재 양성 풍토 세워야”

국내 최초 4개 박사학위 취득한 자현 스님

8월 19일 동국대 학위수여식에서 국내 최초로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를 4개 취득한 이가 있어 화제다. 바로 조계종 교수이사리 자현 스님(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자현 스님은 8년동안 성균관대 동양철학 비교철학, 동국대 미술사학 불교건축, 고려대 불교철학 전공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번 동국대 학위수여식에서는 동국대 역사교육학 한국고대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스님은 “현재 불교계의 가장 큰 문제는 불교인들 앞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이들은 많지만, 대중들 앞에서 현대적인 언어로 불교사상을 말하는 이가 적은 것”이라며 “전문지식만을 갖춘 협사(俠士)가 아닌 무공교인이나 타종교인 앞에서도 불교를 똑똑하게 말할 수 있는 박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조계종 교수이사리이자 동국대 강 의교수로 스님들과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



는 자현 스님은 끝으로 “다른 이들을 불자로 인도하는 것은 불교적 지식의 습득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다”며 “융합 학문 등 과거 불교를 바탕으로 현대가 요구하는 불교학으로 연구영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마하보디사 창립 10주년 기념 법회



조계사는 8월 9일 대웅전에서 마하보디사 창립 10주년 기념 법회를 개최했다. 마하보디사는 조계사 부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쉼터로 경기도 양주에 있다. 이날 기념 법회에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과 마하보디사 주지 와치싸라 스님, 안성 법계사 주지 도운 스님, 스리랑카 불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명세계선센터 신수행학교 개강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닦는 향기처럼...

염천의 더운 바람이 차라리 가을을 기다리는 양 다가오는 계절에 전국 400개 대학에 오직 하나뿐인 동명세계선센터에서 선으로 행복을 노래하고, 선으로 힐링하며, 영원의 세계에 이르는 선수행 학교 4기생을 모집합니다. 동명세계선센터 선원장인 신수행 스님의 직접지도와 명쾌한 강의는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꿔 놓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 일시: 2015년 9월 2일부터 4개월(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일정 변경할 수 있음
지도 및 강의: 신수행 스님(범어사 울원 율주 · 세계선센터 선원장)
대상: 선 수행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장소: 동명대학교 세계선센터(동명관 4층)
수학료: 4개월(10만원) ※개근상(신수행 스님 친필 한복)
접수: 전화 051-629-3582 전송 051-629-3589

동명세계선센터 선원장 관허 수진 합장
부산시 남구 신선로 428 동명대학교 동명관 4층 세계선센터

을미년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 해제법회

해제식 일정 및 장소

일시: 불기 2559(2015)년 8월 24일(월)
장소: 흥법사
법문: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장 수진스님

Table with 2 columns: 구분 (Category) and 시간 (Time). Rows include 수행별 모듬 (Practice types) and 해제법회 (Release ceremony).

문의: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051-501-7554
※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을 회향하신 분들에게 안거증을 발급하오니 동참하신 분들은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